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관련 (제주) 보도자료 스크랩

2025.3.18.(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인터넷	연합뉴스	동북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제주서 개최…6개국 130명 참석	
2	인터넷	뉴스1	'평화의 섬' 제주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 모색…NEAR 워크숍	
3	인터넷	헤드라인제주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제주서 개최	
4	인터넷	서울신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2027년부터 임기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주 제안	
5	인터넷	월드코리안	동북아지방정부연합, 제주도에서 2025 회원정부 워크숍	
6	인터넷	제주투데이	제주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개최	
7	인터넷	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워크숍 개최	
8	인터넷	헤럴드신문	제주특별자치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워크숍 개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제주서 개최…6개국 130명 참석

송고 2025-03-13 15:49

오영훈 제주지사, 주한 러시아 대사 만나 직항로 개설 논의



제주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이 13일 제주에서 개최해 14일까지 진행된다.

NEAR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 9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총영사, 주제주 일본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정부 대표단, 유관 기관 130여명이 참석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제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제주서 개최...6개국 130명 참석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는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이런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은 제주를 제17대 의장으로 제안했다. 제17대 의장 임기는 2027년부터 2029년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오 지사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만나 면담했다.

오 지사는 "과거 제주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직항 노선으로 교류가 활발했지만, 현재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다시 직항노선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제주 감귤 등 제주산 상품의 러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제주~러시아 간 직항노선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제주의 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3/13 15:4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평화의 섬' 제주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 모색...NEAR 워크숍

고동명 기자

2025.03.13 오후 03:26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미래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NEAR) 워크숍' 개최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NEAR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서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 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체험했다.

국외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청정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를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직항노선 등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dm@news1.kr

☞ <https://www.news1.kr/local/jeju/5718352>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제주서 개최

홍창빈 기자 | 승인 2025.03.13 16:16



13일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미래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
부연합(NEAR) 워크숍 개최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NEAR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
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
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프
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 대사 등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인사와 NEAR 회원국 지방정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3일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오 지사는 환영사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제주는 지난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새롭게 그려나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제주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제주에 맞게 수립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청정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제주는 그동안 NEAR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차차기 의장정부 역할을 수행할 책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가 NEAR의 17대 의장정부가 되면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2027년부터 임기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주 제안

입력 : 2025-03-13 15:49 | 수정 : 2025-03-13 15:49



▲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이 열렸다. 제주도 제공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6개국 대표단과 유관기관 130여명이 제주에 다 모였다.

제주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NEAR(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특히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청정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NEAR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차차기 의장정부 역할을 수행할 책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가 NEAR의 17대 의장정부가 되면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식 환영사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지난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새롭게 그려나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제주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제주에 맞게 수립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워크숍 개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5.03.13 15:06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대표단 참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미래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NEAR) 워크숍 개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NEAR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NEAR 회원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 대사 등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인사와 NEAR 회원국 지방정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지난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새롭게 그려나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제주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제주에 맞게 수립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제주는 그동안 NEAR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차차기 의장정부 역할을 수행할 책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가 NEAR의 17대 의장정부가 되면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워크숍 개최

동북아 지방정부와 지속가능한 미래·평화 그린다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대표단, 교류 협력 방안 논의...17대 의장정부로 제주 제안

2025년 03월 13일(목) 21:01



제주특별자치도,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워크숍 개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미래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최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NEAR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

을 논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 대사 등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인사와 NEAR 회원국 지방정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지난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새롭게 그려나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제주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제주에 맞게 수립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청정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제주는 그동안 NEAR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차차기 의장정부 역할을 수행할 적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가 NEAR의 17대 의장정부가 되면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이 기사는 시사종합신문 홈페이지(<http://www.sisatotal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news@sisatotalnews.com